

이 보고서는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발간한 보고서입니다.

기술분석보고서

신신제약(002800)

제약/생명과학

세종시 신공장 개관으로 일반의약품 생산량 증대 및
전문약품 사업분야로의 확대 추진

기업현황

주요 변동사항

재무분석



작성기관

(주)나이스디앤비

작성자

박지수 연구원

- 본 보고서는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통한 자본시장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코스닥 기업에 대한 투자정보 확충을 위해,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후원을 받아 한국IR협의회가 기술신용 평가기관에 발주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 본 보고서는 투자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으로만 제공되는 것입니다. 또한 작성기관이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를 활용한 어떠한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본회와 작성기관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19.3.21.에 발간된 동기업의 기술분석보고서**에 대한 업데이트보고서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IR협회(kirs.or.kr)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투자자종합정보포털(SMILE),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 등록된 기존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본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나이스디앤비(TEL.02-2122-13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IR협회

I. 기업현황

1959년 설립된
국내 굴지의 파스
전문업체
'신신제약'

신신제약(SINSIN PHARM, 이하 '동사')은 1959년 9월 9일 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을 주된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2017년 2월 24일에 코스닥시장 상장을 승인받아 2017년 2월 28일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었다. 동사는 경피형 약물전달 시스템(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이하 'TDDS') 기술과 에어로솔(액상 분사식) 제제화에 특화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동사의 주요제품에는 ▲신신파스RX ▲신신파스 ▲페노크린 ▲케토크린 등의 첩부제(파스)와 ▲물파스 ▲라이센드 ▲물린디 등의 외용액제, ▲에어파스 ▲아무로스프레이와 같은 에어로솔제 등이 있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각 품목별 매출비중은 첩부제가 44.8%, 외용액제가 14.7%, 에어로솔제가 5.8%, 그 외 연고제, 경구제, 피부연화제 등이 34.7%로 구성되어 있다.

동사는 이영수, 김한기, 이병기, 총 3명의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술 책임자에는 성균관대학교 약학 박사를 졸업하고 보령제약, 동구바이오제약 등에서 각각 대표이사, 부회장을 지낸 김상린 최고기술 경영대표가 있다. 이외에도 임원 14인, 직원 291인이 재직하고 있다. 주요 계열사에는 의약품 및 의약품 원부자재 도매유통 전문기업인 TRINET INDUSTRIES, INC(트라이넷)가 있다.

[표1] 주요주주 및 주요 계열사(종속회사) 현황

| 주요주주 | 지분율(%) | 주요 계열사 | 주요사업 |
|-----------|------------|------------------------------|---------------------|
| 이영수 | 25.6 | TRINET INDUSTRIES, INC(트라이넷) | 의약품 및 의약품 원부자재 도매유통 |
| 김한기 | 12.6 | | |
| 홍진식 | 4.8 | | |
| 이명재 | 1.6 | | |
| 기타 | 55.4 | | |
| 총계 | 100 | | |

*출처: 동사 반기보고서(2019.06.),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동사는 TDDS
원천기술을 확보,
이를 기반으로 한
다수의 기술 개발
이력 보유

동사는 앞서 언급한 TDDS를 기반으로 한 원천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TDDS는 피부에 부착하거나 도포하여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는 먹는 약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위장 장애나 간 장애 등과 같은 부작용이 거의 없고 약물이 일정한 속도로 체내에 전달되므로 약효를 오랫동안 유지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 밖에도 사용이 간편하고, 장시간 연속 투여가 가능하다. 동사는 해당 기술을 접목하여 ▲천연고무연합 무용제 첩부제 제조기술 ▲더블 액티브 패치제 제제 기술 ▲단일 약물층 패치 제조기술 등을 개발했으며, 그 밖에도 ▲에어로솔 제제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는 일반의약품을 주력으로 양산해 왔으나, 최근에는 치매 치료 및 수면유도패치 등 전문의약품 파이프라인 구축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동사는 연구개발의 결과로 2019년 10월 현재 기준, 특허권 2건(「톨로부테롤을 함유하는 경피흡수제제」, 「리바스티그민을 함유하는 경피흡수제제」) 및 상표권 60건(「신신제약주식회사」 외 59건)의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다.

II. 주요 변동사항

- ▶ 세종 신공장 개관을 통한 기존 제품과 신제품의 라인업 강화 및 CMO 사업 확대
- ▶ 낙산균을 함유한 프로바이오틱스와 다섯가지 복합성분의 겔타입 무좀치료제 출시

■ 세종 신공장 개관,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기틀 마련

설립 60주년
맞이, 생산 CAPA
3배~5배 증대
가능한 세종
신공장 공개

동사는 창립 60주년을 맞이해 2019년 9월 9일 세종시에서 새로운 스마트 신공장을 개관했다. 이곳에서는 칩부재를 비롯해 에어로졸제, 외용액제, 연고 등을 생산하게 된다. 세종시 소정면 첨단산업단지 내 3만 8,287m² 부지에 약 500억 원을 투자해 건설된 이 공장은 자동화 설비가 구축된 스마트공장으로서, 건축 연면적 2만 2,452m² 규모에 생산 2개동과 관리동, 기타 부속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일반 의약품의 경우 기존의 안산 공장보다 3배~5배까지 생산량을 증대할 수 있는 규모이다(2018년 12월 기준 안산 공장의 생산실적은 제품 총합 55,730개로 집계). 특히 주력 제품인 칩부재 라인은 전 공정 자동화를 통해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가를 절감하며, 자동제어 방식 및 하이렉을 통한 물류 자동화 시스템으로 업무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인다. 그 밖에도 동사는 전문의약품 생산을 위한 생산라인을 도입하여 본격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진입한다.

[그림1] 동사 신공장의 조감도



*출처: 한경헬스(2019)

신공장 개관과
전문책임자
영입으로 제품
포트폴리오
다변화 및 CMO
사업 확대

이로써 동사는 시장 수요(현재 안산 공장의 수요는 가동률 150%를 상회하는 수준)에 맞춘 생산능력을 확보하고, 전문의약품 패치제 시장을 겨냥한 생산라인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동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무엇보다도 동사는 생산능력이 확대되는 만큼 신규 사업인 칩부재 위수탁 생산 사업(Contract Manufacturing Organization, 이하 'CMO 사업')과 해외 수출 물량 증대 및 신흥시장 진출 모색에 집중할 예정이다.

동사는 신공장을 개관하기에 앞서 2019년 8월 첩부제 CMO 사업과 해외수출 등의 업무를 총괄할 개발본부장에 이광호 전무를 영입했다. 신임 이광호 전무는 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을 졸업, 동 경영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또한 이 전무는 1987년 대웅제약을 시작으로 코오롱제약, 한림제약, 한국콜마에서 연구개발, 국내 영업, 해외수출 및 품질경영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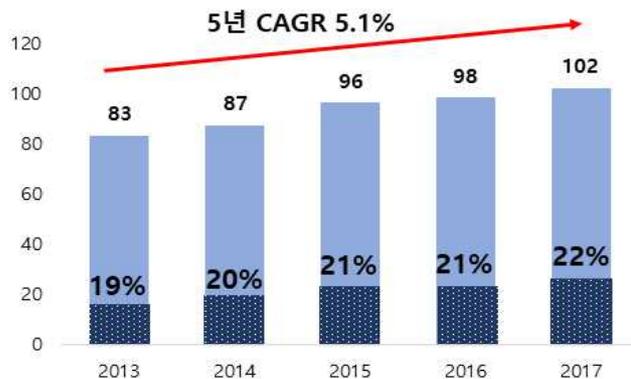
한편, 동사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제품을 북미, 동남아시아, 유럽 등 세계 3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현재 러시아와 독립국가연합(CIS)을 비롯한 신흥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다.

신공장은 수일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우수의약품제조 및 품질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인증」을 받고 머지않아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사의 주력 제품은 올해 상반기 매출액 비중의 44.8%를 차지한 첩부제로 ‘신신파스아렉스’, ‘신신파스’가 대표적이다. 첩부제 시장의 주요 소비층인 노령인구 및 스포츠 활동 인구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전망 역시 밝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첩부제 시장에서 동사 제품들의 점유율은 2013년 19%에서 2017년 22%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첩부제 시장의 꾸준한 성장 ▲동사의 점유율 확보 수준 ▲신공장 가동을 통한 생산량 증대 등의 요소가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한다면 향후 동사의 첩부제 사업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무난하게 안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첩부제 시장’은
주요 소비층인
노령인구 증가,
2013년 83십억 원
→
2017년 102십억 원↑**

[그림2] 첩부제 시장규모 및 동사의 점유율 추이 (단위: 십억 원)



*출처: 동사 제공 자료,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아울러 동사는 첩부제의 원천기술인 TDDS를 기반으로 소염, 진통, 알츠하이머, 천식, 수면장애, 전립선비대증, 요실금의 패치제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다. 특히 요실금 패치제는 올해 상반기부터 임상 1상을 시작했고, 수면유도 패치제는 올해 연말에 비임상에 들어간다. 요실금 패치제의 경우 기존 요실금 치료용 경구제와 달리 한 번 붙이면 효과가 4일간 지속되어 환자의 복약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게 목표다. 수면유도 패치제는 불면증을 앓거나 잠에서 자주 깨는 사람의 수면 질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품으로, 개발에 성공하면 세계 최초의 수면유도 패치로 인정받을 수 있다.

**TDDS 기술력으로
일반의약품 넘어
전문의약품
제약사로의 도약**

한편, 동사의 핵심기술력 ‘TDDS’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4년 384억 달러에서 연평균 6.80% 성장하여 2016년 438억 달러 규모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연평균 7.64% 성장하여 2021년에는 약 633억 원 달러의 시장규모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Tropical Drug Delivery Market, MarketsandMarkets, 2017).

[그림3] 세계 TDDS 시장 규모

(단위: 억 달러)



*출처: Tropical Drug Delivery Market, MarketsandMarkets(2017),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주: 2017년~2020년은 CAGR(2016~2021) 7.64% 적용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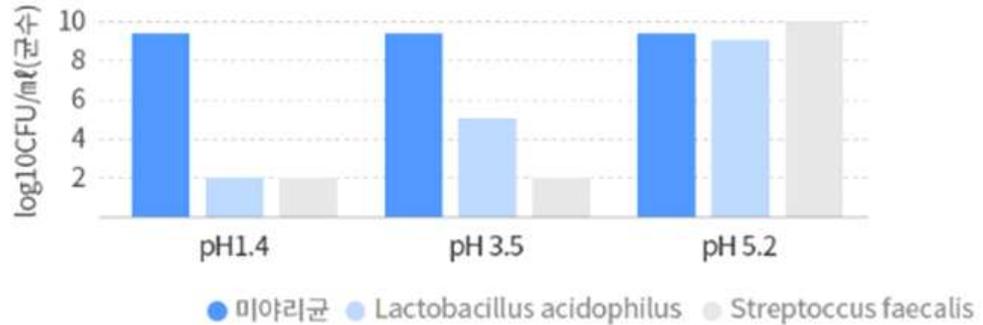
■ **낙산균을 함유한 프로바이오틱스와 다섯가지 복합성분의 겔타입 무즙치료제 출시**

낙산균
프로바이오틱스
‘미야리산’ 출시에
이어 겔타입
무즙치료제 출시,
동사는 현재 ‘제품
다변화 중’

동사는 2019년 5월 낙산균을 함유한 프로바이오틱스 ‘미야리산’을 출시했다. 미야리산 프로바이오틱스는 기존 유산균 제제 중심의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낙산균이 함유된 점이 가장 큰 차별점이다. 해당 제품은 낙산균에 Ursodeoxycholic Acid가 함께 함유된 ‘미야리산U’와 비타민 B 종류가 더해진 ‘미야리산 엔젤과립’ 두 종류로 나뉜다.

건강을 유지하는 데에는 면역력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면역력은 70%가 장(腸)이 관장하고 있는데, 프로바이오틱스는 유익균으로 장내 유익균과 유해균의 균형을 맞추어 준다. 동사 제품에 함유된 낙산균은 뷰티르산(낙산)을 만들어내는 균으로, 장내에 상주하면서 에너지 및 면역(항염, 항암) 향상을 실현한다. 한편, 낙산균은 프로바이오틱스 중 가장 잘 알려진 유산균 대비 장 도달률과 도달 속도가 높다. 유산균은 위산에 약해 장까지 도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코팅 기술이 필요한 반면 낙산균의 경우 스스로 자연캡슐인 아포(spore)를 생성해 낸다. 아포는 외부의 물리화학적 작용에 저항할 수 있는 방어막으로 자체적으로 생균을 보호하고, 위산, 소화 효소, 담즙산, 항생제 등에서도 살아남는다. 실제로 사람의 위액 속에서 낙산균과 기타 유산균류의 위산 저항을 비교한 결과 pH1.4 이하에서 유산균류는 거의 사멸하는 반면, 낙산균은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4].

[그림4] 사람의 위액 속에서 낙산균(미야리균)과 기타 유산균류의 위산 저항 비교



*출처: 한경헬스(2019),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면역력 증가,
성인병 예방 등 장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전망 역시
'밝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하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2012년 519억 원에서 2017년 2,174억 원으로 5년 동안 4배 이상 급성장했다. 또한,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건강기능식품 시장(4조 2,500억 원)에서 프로바이오틱스는 약 11%(4,700억 원)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와 더불어 한국바이오경제연구센터에 의하면 세계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규모는 면역력 증가, 성인병 예방 등 장 건강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 성장을 견인하여 2022년이 되면 7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동사는 올해 5월 겔 타입의 무즙치료제인 '무조무플러스겔'을 출시하기도 했다. 동사는 무즙 치료제를 제형별로 개발해 온 바 있다. '무조무알파에어로솔', '무조무원스', '원케어네일라카' 등 소비자 취향에 따라 바르거나 뿌릴 수 있게 사용 편의를 고려하여 제형별 무즙 치료제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출시한 '무조무플러스겔' 제품의 경우, 5가지 복합성분의 항진균제로, 테르비나핀 성분을 포함한 5가지 주성분(테르비나핀, 리도카인, 디펜히드라민염산염, 에녹솔론, 이소프로필메틸페놀)으로 이루어져 무즙의 치료 뿐만 아니라, 간지러움, 냄새, 통증, 염증 등 불편함을 함께 개선하고자 했다.

**무즙 치료제는 기존
경구제 중심에서
바르는 치료제로
대체되고 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손발톱 무즙 진료인원은 2014년 117만명, 2015년 116만명, 2017년 118만명으로 집계된다. 또한, 치료제 시장 규모는 먹는 경구제와 바르는 외용제를 포함해 2018년 기준 약 1,000억 원대를 형성한 바 있다. 특히 경구제를 중심으로 움직이던 국내 손발톱무즙 치료제 시장은 경구제의 부작용 우려로 인해 그보다 높은 완치율을 보이는 바르는 치료제로 시장 확대가 빨라지고 있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설명이다(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 피부과 이영복 교수의 '손발톱무즙 치료제의 최신 지견' 일부를 발췌, 2019.11.06.).

Ⅲ. 재무분석

[표 2] 주요제품별 매출추이 변화

(단위: 백만 원, 연결기준)

| | 품목 | 2017 | 비중 (%) | 2018 | 비중 (%) | 2018 상반기 | 비중 (%) | 2019년 상반기 | 비중 (%) |
|----|--------------|---------------|---------------|---------------|---------------|---------------|--------------|---------------|---------------|
| 제품 | 첩부제 | 29,759 | 48.2 | 30,786 | 48.3 | 15,021 | 46.3 | 15,478 | 44.8 |
| | 에어로졸 | 3,656 | 5.9 | 3,490 | 5.5 | 1,999 | 6.2 | 2,026 | 5.9 |
| | 외용액제 | 7,574 | 12.3 | 6,383 | 10.0 | 4,551 | 14.0 | 2,259 | 6.5 |
| | 티눈관련 | 2,724 | 4.4 | 3,160 | 5.0 | 1,617 | 5.0 | 1,758 | 5.1 |
| | 연고크림겔제 | 620 | 1.0 | 694 | 1.1 | 457 | 1.4 | 76 | 0.2 |
| | 위생용품 | 1,257 | 2.0 | 791 | 1.2 | 403 | 1.2 | 396 | 1.1 |
| | 기타 | 417 | 0.7 | (5) | 0.0 | (189) | (0.6) | (54) | (0.2) |
| | 제품 소계 | 46,005 | 74.5 | 45,299 | 71.1 | 23,858 | 73.6 | 21,938 | 63.5 |
| 상품 | 외용액제 | 2,742 | 4.4 | 2,475 | 3.9 | 1,510 | 4.7 | 2,829 | 8.2 |
| | 위생용품 | 1,988 | 3.2 | 2,008 | 3.2 | 1,127 | 3.5 | 895 | 2.6 |
| | 경구제 | 3,169 | 5.1 | 2,375 | 3.7 | 1,352 | 4.2 | 1,982 | 5.7 |
| | 점안제 | 3,671 | 5.9 | 3,731 | 5.9 | 1,728 | 5.3 | 1,976 | 5.7 |
| | 연고크림겔제 | 431 | 0.7 | 859 | 1.3 | 399 | 1.2 | 898 | 2.6 |
| | 기타 | 3,492 | 5.7 | 5,582 | 8.8 | 2,030 | 6.3 | 3,542 | 10.2 |
| | | 상품 소계 | 15,492 | 25.1 | 17,029 | 26.7 | 8,153 | 25.1 | 12,123 |
| | 기타 | 235 | 0.4 | 1,392 | 2.2 | 357 | 1.1 | 512 | 1.5 |
| | 합계 | 61,733 | 100.0 | 63,720 | 100.0 | 32,426 | 100.0 | 34,574 | 100.0 |

*출처: 동사 반기/사업보고서,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동사의 매출은
신신파스RX,
신신파스, 케토크린
등 첩부제가 44.8%
이상을 차지

동사의 매출구성을 살펴보면 제품 매출이 74.5%, 상품 매출 및 기타 매출이 25.5%로 제품 매출 부문의 경우 신신파스RX, 신신파스, 케토크린 등 국소부위에 적용하여 피부를 통해 약물을 전달하는 첩부제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44.8% 이상을 차지 (2019년 상반기 기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사의 주력사업 영역인 첩부제 시장의 경우 KB증권에 따르면 의약품 정보에 대한 접근성 확대에 의한 Self-medication 수요 확대, 스포츠 활동 인구 비중의 확대로 인한 외용 소염진통 의약품 수요 증가, 파스의 주요 소비계층인 노령인구의 증가 등을 이유로 2010년부터 연평균 14.8%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동사의 향후 매출 전망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동사는 전국
8,300여 개의 약국
유통망을 구축,
이에 매출처 비중은
소매약국이 40%
이상을 차지

또한, 동사의 주요 매출처의 경우 일반의약품인 첩부제 특성상 소매약국의 비중이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사가 전국 8,300여 개의 약국에 직접 유통망을 구축한 결과로 추정된다. 동사의 경영진은 동사가 기타 제품 및 일반 의약품 상품 판매를 위해 약국 직접판매 유통망을 활용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동사의 2018년 매출은 637.2억 원(+3.2%, YoY)을 기록했으며 2019년 상반기 매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약 7% 성장한 345.7억 원을 기록하여 꾸준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3] 실적현황(요약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연결기준)

- 연간비교

| 구분 | 2017년 | 2018년 | 증감율(YoY)(%) |
|---------|--------|--------|-------------|
| 매출액 | 61,733 | 63,720 | 3.2 |
| 매출원가 | 40,039 | 41,525 | 3.7 |
| 매출총이익 | 21,694 | 22,195 | 2.3 |
| 판매비와관리비 | 17,183 | 19,159 | 11.5 |
| 영업이익 | 4,511 | 3,036 | (32.7) |
| 당기순이익 | 3,532 | 2,809 | (20.5) |

- 반기비교

| 구분 | 2018년 상반기 | 2019년 상반기 | 증감율(QoQ)(%) |
|---------|-----------|-----------|-------------|
| 매출액 | 32,426 | 34,574 | 6.6 |
| 매출원가 | 20,851 | 22,312 | 7.0 |
| 매출총이익 | 11,575 | 12,262 | 5.9 |
| 판매비와관리비 | 9,556 | 10,627 | 11.2 |
| 영업이익 | 2,019 | 1,635 | (19.0) |
| 당기순이익 | 1,888 | 1,539 | (18.5)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8.12) & 반기보고서(2019.06),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전년 대비 2018년
매출: 3.2% ↑
영업이익: 32.7% ↓
당기순이익: 20.5% ↓

동사의 2018년 매출은 2017년 대비 3.2% 증가한 637.2억 원을 시현 했으며, 2019년 상반기는 작년 동기 대비 6.6% 증가한 345.7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2017년 45.1억 원에서 2018년 30.4억 원으로 32.7% 감소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20.2억 원 대비 19% 감소한 16.4억 원을 기록하였다. 당기순이익의 경우 2018년 28.1억 원으로 전년 35.3억 원 대비 20.5% 감소하였으며, 2019년 상반기는 15.4억 원으로 전년 동기 18.9억 원 대비 (-)18.5% 감소한 수준을 기록했다.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의
감소는
매출원가율이
높은 상품매출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추정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감소의 주된 원인으로는 매출원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품매출의 증가로서, 2018년 경우 상품매출은 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9.9% 성장한 반면 제품 매출의 경우 전년 460억 원 대비 (-)1.5% 줄어든 453억 원에 그쳤다. 2019년 상반기 상품 매출은 12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8.7% 성장하였으나 제품 매출은 219억 원으로 전년 동기 239억 원 대비 (-)8% 감소하였다.

증권사 투자 의견

[표 4] 증권사 투자 의견

| 작성 기관 | 투자 의견 | 목표주가 | 작성일 |
|-------|--|------|-------------|
| KB증권 | Not rated | NA | 2018.12.17.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크 포인트) 칩부제 시장의 안정성, 강력한 유통망, TDDS 핵심기술 ▪ (리스크) 일반의약품에 집중되어 있는 매출액, '신신파스아렉스'의 편 의점 시장 내 경쟁 심화 혹은 지정 제외 가능성 | | |
| KB증권 | KB증권 | NA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칩부제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 ▪ 강력한 유통망을 통한 안정적 성장 ▪ TDDS 기술력으로 ETC 사업부 포트폴리오 확대 ▪ 2018년 공장 CAPA 부족으로 실적 성장은 다소 제한적, 2019년 세종공장 증설 효과 기대 | | |

■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 원, 연결기준)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자산 | | | |
| 유동자산 | 34,534 | 41,460 | 44,806 |
| 현금및현금성자산 | 649 | 7,282 | 1,894 |
| 단기금융상품 | 280 | 280 | 280 |
| 매출채권 및 기타유동채권 | 26,360 | 26,933 | 32,717 |
| 재고자산 | 6,913 | 6,524 | 9,498 |
| 기타유동자산 | 332 | 441 | 417 |
| 비유동자산 | 34,275 | 37,394 | 63,114 |
| 장기금융상품 | 18 | 22 | 25 |
| 장기매출채권 및 기타비유동채권 | 3,762 | 3,897 | 149 |
| 기타비유동금융자산 | 79 | 79 | 0 |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 0 | 0 | 81 |
| 유형자산 | 25,800 | 28,715 | 58,261 |
| 투자부동산 | 3,843 | 3,750 | 3,658 |
| 영업권 이외의 무형자산 | 532 | 771 | 900 |
| 기타비유동자산 | 242 | 144 | 0 |
| 이연법인세자산 | 0 | 17 | 40 |
| 자산총계 | 68,809 | 78,855 | 107,920 |
| 부채 | 0 | 0 | 0 |
| 유동부채 | 17,763 | 17,837 | 30,723 |
| 매입채무 및 기타유동채무 | 8,346 | 9,526 | 15,837 |
| 단기차입금 | 6,036 | 5,333 | 11,228 |
| 당기법인세부채 | 765 | 379 | 266 |
| 유동충당부채 | 2,091 | 2,160 | 2,424 |
| 기타유동부채 | 524 | 440 | 968 |
| 비유동부채 | 16,616 | 8,704 | 22,542 |
| 장기차입금 | 11,193 | 3,247 | 17,358 |
| 기타비유동금융부채 | 120 | 180 | 180 |
| 기타비유동부채 | 3,200 | 3,200 | 3,200 |
| 퇴직급여부채 | 865 | 958 | 772 |
| 이연법인세부채 | 1,239 | 1,120 | 1,031 |
| 부채총계 | 34,379 | 26,541 | 53,265 |
| 자본 | 0 | 0 | 0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자본 | 34,430 | 52,120 | 54,539 |
| 자본금 | 5,912 | 7,585 | 7,585 |
| 기타자본구성요소 | 1,459 | 14,450 | 14,450 |
| 기타포괄손익누계액 | 0 | (27) | (24) |
| 이익잉여금(결손금) | 27,059 | 30,111 | 32,528 |
| 비지배지분 | 0 | 194 | 115 |
| 자본총계 | 34,430 | 52,313 | 54,655 |
| 자본과부채총계 | 68,809 | 78,855 | 107,920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8.12),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 원, 연결기준)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수익(매출액) | 58,069 | 61,733 | 63,720 |
| 매출원가 | 37,029 | 40,039 | 41,525 |
| 매출총이익 | 21,040 | 21,694 | 22,195 |
| 판매비와관리비 | 15,507 | 17,183 | 19,159 |
| 영업이익(손실) | 5,533 | 4,511 | 3,036 |
| 금융수익 | 285 | 298 | 366 |
| 금융원가 | 516 | 634 | 271 |
| 기타이익 | 246 | 268 | 265 |
| 기타손실 | 50 | 95 | 33 |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 5,499 | 4,349 | 3,362 |
| 법인세비용 | (1,057) | 817 | 553 |
| 당기순이익(손실) | 4,441 | 3,532 | 2,809 |
| 기타포괄손익 | 274 | (197) | 58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 확정급여제도의 재측정손익(세후기타포괄손익) | 274 | (151) | 38 |
|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세후기타포괄손익) | 0 | 0 | 0 |
| 해외사업장환산외환차이(세후기타포괄손익) | 0 | (45) | 20 |
| 총포괄손익 | 4,715 | 3,336 | 2,868 |
| 당기순이익(손실)의 귀속 | 0 | 0 | 0 |
|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4,441 | 3,605 | 2,896 |
| 비지배지분에 귀속되는 당기순이익(손실) | 0 | (72) | (87) |
| 총 포괄손익의 귀속 | 0 | 0 | 0 |
| 총 포괄손익, 지배기업의 소유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 4,441 | 3,426 | 2,964 |
| 총 포괄손익, 비지배지분 | 0 | (91) | (97) |
| 주당이익 | 0 | 0 | 0 |
| 기본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88 | 245 | 191 |
| 희석주당이익(손실) (단위 : 원) | 388 | 245 | 191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8.12), 나이스디앤비 재구성

■ 현금흐름표

(단위: 백만 원, 연결기준)

| 구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
| 영업활동현금흐름 | 2,794 | 4,569 | 774 |
| 당기순이익(손실) | 4,441 | 3,532 | 2,809 |
| 당기순이익조정을 위한 가감 | 2,926 | 3,942 | 3,339 |
| 영업활동으로인한자산·부채의변동 | (2,806) | (1,307) | (4,232) |
| 이자수취(영업) | 6 | 101 | 63 |
| 이자지급(영업) | (534) | (403) | (426) |
| 배당금수취(영업) | 0 | 0 | 1 |
| 법인세납부(환급) | (1,239) | (1,296) | (780) |
| 투자활동현금흐름 | (5,587) | (3,598) | (25,666) |
| 단기금융상품의 처분 | 42 | 280 | 280 |
| 장기금융상품의 처분 | 5 | 0 | 0 |
| 종속기업과 기타 사업의 지배력 획득에 따른 현금흐름 | 0 | 767 | 0 |
| 유형자산의 처분 | 6 | 5 | 9 |
| 무형자산의 처분 | 9 | 0 | 0 |
| 임차보증금의 감소 | 103 | 10 | 31 |
| 정부보조금의 수취 | 3,010 | 0 | 0 |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 0 | (280) | (280) |
| 장기금융상품의 취득 | 0 | (4) | (4) |
| 대여금의 증가 | 0 | 0 | 0 |
| 임차보증금의 증가 | (1,312) | (82) | (109) |
|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취득 | 0 | (724) | 0 |
| 유형자산의 취득 | (7,409) | (3,571) | (25,438) |
| 무형자산의 취득 | (20) | 0 | (155) |
| 투자부동산의 취득 | (21) | 0 | 0 |
| 재무활동현금흐름 | 3,070 | 5,674 | 19,510 |
| 단기차입금의 증가 | 8,669 | 10,008 | 19,060 |
| 장기차입금의 증가 | 8,500 | 0 | 15,249 |
| 임대보증금의 증가 | 0 | 60 | 0 |
| 주식의 발행 | 1,474 | 14,666 | 0 |
| 단기차입금의 상환 | (9,700) | (11,592) | (11,964) |
| 유동성장기차입금의 상환 | (5,630) | (7,066) | (2,335) |
| 배당금지급 | (242) | (402) | (501) |
| 현금및현금성자산에 대한 환율변동효과 | 19 | (11) | (6) |
| 현금및현금성자산의순증가(감소) | 297 | 6,633 | (5,388) |
| 기초현금및현금성자산 | 352 | 649 | 7,282 |
| 기말현금및현금성자산 | 649 | 7,282 | 1,894 |

*출처: 동사 사업보고서(2018.12), 나이스디앤비 재구성